

선거 도운 사람 넘치는데...감투는 누가?

민선 7기 광주·전남 기관장 관선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등
광주 4곳·전남 5곳 공석
인선 미루고 권한대행 체제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광주·전남도의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새 수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선거 운동을 도운 시장·지사 당선인의 측근이 주요 공기업·출연기관의 수장을 차지하고, 이들의 친인척들이 일자리를 독차지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산하 기관은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20곳 등 모두 24곳이며 이 가운데 도시공사,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 그린카진흥원 등 4곳의 수장이 현재 공석이다. 또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11월)과 광주영어방송(9월) 등 2곳이

다. 특히, 단체장이 교체되면 함께 일을 했던 정무직도 물러나는 과거의 관행으로 미뤄볼 때 빈자리가 추가로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이윤섭 당선인 선거캠프에 전직 시정 국장급 공무원만 10여명에 달하고 선거를 도운 사람을 챙기려면 최소 200개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 기간 동안 캠프 일부 관계자들이 광주시에 전화해 걸어 특정 계약직 공무원의 남은 임기를 문의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이날 "모든 인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정실·측근인사나 청탁인사는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 경우 산하기관 중 고위급 인사 공백이 발생한 곳은 모두 5곳이다.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전남개발공사 사장,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전남여성플라자 원장, 전남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등이다.

지사권한대행 체제인 전남도는 올 들어 임기가 끝난 산하 기관장의 후임 인선을

보류한 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자리에 대한 인사는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이 취임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의 첫 인사가 되는 만큼 그의 인사 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스템을 통한 투명·공정 인사가 이뤄질 지, 측근·보은 인사 논란에 휘말릴 지 시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3월 말 우기중 전 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으로서 옮겨가면서 공석이 됐다. 정무부지사는 국비 확보, 투자 유치, 중앙·지방정치권과 유대관계 형성 등 '바깥 살림'을 이끄는 요직이다.

김 당선인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 도정 역량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어 '경제통'으로 할지, 아니면 임기초 조직 안정을 고려한 '정무통'으로 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 유일의 지방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명에도 시선이 쏠린다. 전남개

발공사는 남악신도시와 여수 경도관광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이 4800억원에 달한다. 개발공사 사장은 출연·출자기관 가운데 '노른자위'로 꼽힌다. 희망자가 많아 과거 사장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잦았다. 양지문 전 사장 임기가 끝난 1월 이후에만 3명의 직무대행이 오가면서 리더십 부재를 안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는 점에서 도의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남테크노파크 원장과 전남여성플라자 원장, 전남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자리도 비어있다.

테크노파크 원장은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혐의로 지난 3월 해임됐고, 여성플라자 원장은 지난 1월말 임기만료 이후 공석이다.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김 당선인이 전남관광공사 설립을 공약한 만큼 재단의 변화를 꾀하면서 관광공사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사가 낙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클래식 '임 행진곡' 프라하에 울려 퍼진다 다음달 7일 연주회...서울·일본서도 공연

광주 5월의 노래이자 민주화 운동의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체코 프라하에서 클래식 선율로 울려 퍼진다.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 체코 프라하 공연이 오는 7월 7일 체코 리히텐슈타인 궁전 내 마르티누홀에서 열린다.



체코 국립교향악단 연주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이번 음악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클래식으로 재탄생해 국외에서 첫선을 보이는 자리다. 특히 동유럽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체코 프라하에서 연주회가 열려,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연주되는 곡은 '임을 위한 행진곡' (원곡 김종률)을 주제로 한 황호준 작곡 '임을 위한 서곡' (序曲)과 김대성 작곡 교향시 '민주' (Democracy)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1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38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음악회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주와 김홍재 지휘로 초연돼 호응을 얻었다.

체코 연주회는 체코를 대표하는 하이코 마티아스 피르스터(야나체 필하모닉오케

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의 지휘로 체코 내 서남실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지휘자 하이코 마티아스 피르스터는 한국에서 KBS교향악단, 울산시향 객원 지휘와 함께 지난해 열린 '정율성음악회 -클래식의 밤' 당시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특히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 관현악곡 국내외 공연에 관심을 갖고 이번 연주회 지휘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연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창작곡들은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오는 9~10월 광주문화예술회관,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이어 일본 도쿄 파르테노 타미홀 등에서 연주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교조 논란 입 연 청와대 "일방적 직권취소는 불가능"

청와대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논란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률들이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되고 법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ILO 핵심 협약 4개에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와 양보,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1년 뒤 법무부는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ILO 협약 87·98호,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29·105호를 비준하라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권고를 검토 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전날 전교조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요구에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건배하고 있다. <베이징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3차 방중 마무리...북중 밀월 과시

북한 대사관 이례적 방문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방중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두 차례 회동하며 밀착된 북중 관계를 과시했다. <관련기사 8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방중 첫날인 지난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활력이 넘쳐 기쁘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한반도 대화 추세가 공고해지고 북한 노동당의 새 전략 노선이 북한 사회주의 사업을 새로운 길로 이끄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북중 양측의 공동 노력 아래 북중 관계는 양국 국민에 더욱 (많은) 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중은 한가 죽처럼 서로 도와주고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우리에게 친절하고 감격스러운 지지를 보여줬다"고 회답했다.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 노태약·김선수 등 10명 추천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환, 김창석, 김진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약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등 10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태약과 김선수 등 10명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현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도 후보 10명에 포함됐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이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

을 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현재 법관 33명과 비 법관 8명 등 41명으로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10명으로 압축했다.

통상 위원회의 후보 추천 후 대법원장은 1주일 동안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관 선별과정에서는 추천된 10명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청 대상자를 선별할 입장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0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3인을 고를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임야·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비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1억
- 장성 북이면 장성면 인근 전 2136㎡ 주택·참고적합 4700만원
- 신안군 압해도 북룡리 1810㎡ 저수지일 조용한생활 적합 4300만원
- 곡성 삼거리 대지 681㎡ 광주서 30분내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점 1층 임대 병3 주차장 4천에 45만원
- 화순 동면 땅 706㎡ 2층전원주택 상가주택·아파트와 교환원 2억6천
- 월산동 소방도 땅 165㎡ 주택 179㎡ 3세대 생활용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층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충남 보령시 원산도 664㎡ 농림 9천 취득 1억4천 매도 1300
- 영광 홍농읍 주거지역 2136㎡ 공사가 6700 매도 8700
- 곡성 입면 매실밭 등 11828㎡ 귀농생활에 최적 2억4천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 32923㎡ 국당 적합 7500만원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3천
- 무인텔부지 화순 도곡면 2008㎡ 위치좋은 6억천
- 수목장(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좋은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함평역 건너 대로점 2중주거지 3192㎡ 다양한용도 2억6천
- 태양광적합 영광 군남 반안리 114843㎡ 매도 8억
- 전원주택지 무안 운남면 내리 5000㎡ 법인이전 1억6500

상가건물

- 동구 충장로5가점 수기동 대지 168㎡ 2중건물 투지에 좋음 3억8천
- 북구 용동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455㎡ 830㎡ 은행5억 교환가능 9억
- 가센터적합지 능성동 대지 182㎡ 3중건물 297㎡ 현재운영중임 4억
- 능성역 부근 대지 973㎡ 건물 457평 공시지가 18억 매도 39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최적 69억
- 북동 5중건물 대지 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충장로5가 오지 대지 261㎡ 5중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능성초교옆문앞

사주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주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공개강좌(무료)

- 일시 : 2018년 7월 8일(일) 오후2시
- 장소 :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 사주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공개강좌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주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